

'캐스퍼 효과' GGM '캐스퍼 전기차 효과' 더한다

2024년부터 전기차 본격 양산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2024년부터 전기를 생산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차로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GGM은 내연기관 차량만 생산해왔던 탓에 생산물량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전기차 생산에 돌입하면 친환경차 수요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고,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GGM은 20일 오는 2024년부터 현대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의 전기차 모델을 본격 양산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시장 진입 등 생산 다변화로 안정적 사업기반 구축

내년 생산설비 발주·주야 2교대 체제 전환으로 일자리 창출도

앞서 2019년 9월 20일 출범한 GGM은 2021년 4월 29일 공장을 준공한 뒤 시험생산에 돌입, 2021년 9월 15일 1호차 생산을 시작으로 캐스퍼 양산에 돌입했다.

캐스퍼는 사전예약 1만8940대를 기록해 현대차 내연기관차 최초로 사전계약 첫날 최다기록을 세웠다.

이후 GGM은 양산 100일 만에 1만2000대를 생산하며 그해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고, 올해 반도체 수급난 등 악조건 속에서도 매달 평균 4000대를 생산해 올 목표인 5만대 생산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말 현재 캐스퍼의 누적 생산량은 4만 5000대로, 올 한 해 생산량은 3만대를 넘어섰다.

이처럼 캐스퍼나 초반 흥행에 성공했지만 지역경제계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에 '경차'라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해 추후 GGM이 생산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자동차 생산 전문기업인 만큼 안정적인 위탁 생산 물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는 현재 신차 시장은 170여 만대로, 경차 시장은 불과 10만여 대로 분석하고 있다. 또 정부 추산으로 2030년 친환경차의 전 세

계 판매량이 5000만대를 기록하는 등 전체 자동차의 절반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차 출시 효과 이후 캐스퍼의 소비가 감소할 수 있는 데다,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는 계속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내연기관차 생산공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이유다.

하지만 GGM이 2024년부터 캐스퍼 전기차 모델을 양산하기로 하면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캐스퍼 전기차 수요 증가와 생산물량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내수 판매를 넘어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GGM 측도 친환경차 위주로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의 흐름과 국내 경차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전기차 생산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연기관 차량과 친환경 차량을 병행 생산하는 다변화를 통해 수요물량을 늘리는 등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기차 생산을 계기로 GGM은 공동복지와 상생복지를 더 확대하는 등 직원들의 만족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회사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쟁력 향상과 가치를 높여준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광태 GGM 대표이사는 "전기차 생산은 GGM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지만 이를 최대한 앞당겨 오는 2024년 하반기에는 양산 체제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해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 전문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전남 상장사 시총 비중 '전국의 1%'

월평균 22조8331억 그쳐...감소율은 전국 평균 웃돌아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들의 주식 시총액이 전국의 1% 비중을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한 시총 감소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희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시)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준 광주·전남지역 주식 상장법인(코스피 16개사·코스닥 21개사) 월평균 시총액은 광주 3조7610억원·전남 19조721억원으로, 전국 시총과 비교하면 각각 0.2%, 0.8% 비중을 그쳤다.

전국 상장사들의 월평균 시총액은 2430조 9547억원으로, 수도권이 86.2%(2096조4052억

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수도권을 나눠보면 서울에 43.9%, 경기도에 37.6%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시총 비중이 1%대를 나타낸 지역은 제주·경남 각 1.7%, 충북 1.6%, 경북 1.5%, 대전 1.3%, 대구·울산·충남 각 1% 등이었다.

전남·부산(각 0.8%), 전북(0.7%), 강원(0.5%), 광주·세종(각 0.2%)은 시총 비중 1%도 넘지 못했다.

광주·전남 상장사들의 시총 감소는 전국 평균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상장사들의 지난해 월평균 시총은 4조 3679억원이었었는데, 올해는 3조7610억원으로

13.9%(-6069억원) 감소했다. 전남은 같은 기간 20조7031억원에서 19조721억원으로, 7.9%(-1조 6310억원) 줄었다.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 감소율 6.3%를 웃돌았다.

김희재 의원은 "지속적인 균형발전 노력에도 민간시장 자금 대다수가 수도권 기업으로 쏠리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화가 지속된다면 지역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성장 동력조차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의 경제활력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들의 지역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지역 분사제 법안 발의를 통해 균형발전을 이뤄내고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산세무서-해남 북평중 자매결연

도서·장학금 기부 등

광산세무서(서장 이종학)는 20일 해남 북평중학교와 자매결연(사진)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광산세무서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도서를 기부, 북평중학교 도서관에 후원했다. 이밖에 100만원 상당의 장학금과 문구류, 간식 등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또 이날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상담과 청소년 세금 교육을 해주는 등 세금에 관한 궁금증과 세금의 쓰임새, 세금의 종류 등에 대한 교육도 펼쳤다. 이번 자매결연은 농어촌지역 청소년들에게 진

로상담과 세금교육 등을 비롯해 직접 만남의 기회를 갖고 소통·교류하기 위해 추진했다. '세무서'라는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관공서의 이미지를 벗어나,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는 관공서로 변신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취지다.

이종학 광산세무서장은 "지역민과 따뜻하게 동행하고 함께하는 세무서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한걸음 더 다가가는 세정활동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하루 만에 완성하는 기획력 향상 방법은?

광주상의 23일 중기 실무자 교육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광주상의 교육장에서 '하루 만에 완성하는 기획력 향상 시리즈'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전략기획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과 효과적인 기획서 작성법, 프레젠테이션 기술 등 관련 강의로 지역 중소기업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김정곤 더플랜경영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약 7시간 동안 ▲기획서 작성의 기본 방향 ▲기획에 필요한 전략적 사고 및 프레젠테이션 기법 ▲기획서 논리 전개 방법 ▲기획서 시각화 기법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전략 등 기획서 작성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교육 수강생들은 당일 교육 교재와 수료증, 무

료 주차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광주상의 홈페이지(www.gjcci.or.kr)를 참고하거나 회원사업본부 전화(062-350-5883)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강의가 기업 실무자 개인의 사고력과 기획 역량을 향상시키고, 기업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실무 강의와 설명회, 컨설팅 등으로 지역 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상의는 다음 달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노동법에 대해 다루는 '인사담당자가 놓쳐서는 안되는 필수 노동법' 강좌와 결산 전 회계 및 세무에 핵심 점검사항에 대해 정리하는 '스마트 체크 UP! 법인결산 회계·세무 처리'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상시 모집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2014년 국내 첫 도입된 일학습병행은 독일과 스위스 등 기술 강국의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 실정에 맞게 설계한 교육훈련 제도다. 학습기업이 청년 등을 우선 채용한 후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지원하고, 학습근로자는 현장훈련 이외 학교 등에서 이론학습을 병행하는 훈련이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현장훈련 비용(1인당 1000만원 내외), 기업현장교사 수당(연간 1300만원 한도), HRD 담당자 수당(연간 300만원) 등 학습근로자 5인 기준으로 약 5000만원 안팎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병역특례, 조달청 가산점 등 부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문의 062-970-1784-6.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67.85(+12.19)
↑ 코스닥	760.35(+8.44)
↑ 금리(국고채 3년)	3.823(+0.064)
↓ 환율(USD)	1389.50(-4.10)



삼성전자 모델이 20일 공간 특성에 맞게 조합해 설치할 수 있는 '비스포크 무풍 시스템에어컨'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맞춤형 냉방 솔루션 '비스포크 무풍 시스템에어컨' 출시

주거 공간 맞춤 0.5도 단위 냉방...실외기 한 대에 에어컨 추가 가능

삼성전자가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설치 공간에 따라 맞춤형 냉방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스포크 무풍 시스템에어컨'을 20일 출시했다.

비스포크 무풍 시스템에어컨은 소비자의 주거 공간과 필요에 맞춰 에어컨 타입과 개수, 냉방 용량까지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제품이다.

이 시스템에어컨에 적용된 실외기를 사용하면, 실외기 1대로 천장형 뿐만 아니라 스탠드형, 벽걸이형까지 최소 2대에서 최대 5대의 실내기를 조합해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시스템에어컨과 스탠드형·벽걸이형의 실외기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제품은 이사 등으로 설치 공간 규모가 바뀌거나 가족 수가 늘어나도 실외기 1대로 에어컨을 유연하게 추가·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삼성전자는 ▲냉방 용량 13.0~58.5㎡까지 총 7가지 용량의 천장형과 ▲56.9~81.8㎡까지 4가지 용량의 스탠드형 ▲18.7㎡ 용량의 벽걸이형 제품을 선보인다. 출시 가격은 조합에 따라 491만원~1049만원(설치비 미포함)이다.

비스포크 무풍 시스템에어컨 천장형 신제품은 0.5도 단위의 미세 온도 조절 기능이 추가돼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온도 설정이 가능하다. 넓은 무풍 패널의 마이크로홀에서 부드러운 냉기가 나오는 '무

풍 모드'를 사용하면 쾌적한 냉방을 즐길 수 있다.

위생관리가 어려웠던 천장형 에어컨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가정용 무풍에어컨에 적용됐던 '이치케어 5단계'와 AI(인공지능) 기반의 맞춤 기능인 'AI 청정', '비스포크 AI 맞춤쾌적'도 추가했다.

비스포크 무풍 시스템에어컨 모든 모델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이다.

이강현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사용자 맞춤형 기능이 강화된 비스포크 무풍 시스템에어컨으로 무풍 생태계가 한단계 더 확장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요구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기술과 제품 개발을 통해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비스포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